

종합최고상

- 광주송원초등학교
- 수완중학교
- 광주예술고등학교

미술



김한서 (주월초1)



류연우 (광주송원초3)



범승언 (조봉초5)



서혜민 (양산중2)



류재정 (수완고1)

시



송민성 (광주송원초 3년)



조희란 (광주동성여중1)



박준형 (인천부개고 3)



김동휘 (광주효덕초2)



이호준 (광주교대광주부설초3)

산문

성악

플루트

바이올린

캐릭터



곽민경 (살레시오초5)



조정빈 (군산제일고3)



김가연 (대자초6)



최에서 (광주삼육초4)



서민영 (호남삼육고2)

피아노



문희주 (순천왕운초1)



윤경환 (조봉초4)



나지연 (목포영산초5)



김아인 (담양여중3)



이동화 (광주예고3)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클래식

현악 중주

김소미 외 14명(광주송원초)



조은빛 (광주예고2)



류인웅 (송의고3)



박선주 (수완중2)

관현악 합주

심기현 외 68명(광주송원초)

국악 가야금병창

김도연 외 9명(광주송원초)

합창

김나연 외 38명(화순제일초)

산문

감정

박준형 <인천부개고 3년>

“사랑합니다 고객님” 굳게 닫힌 문 틈새로 기  
계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분명 엄마의 목소리  
였지만 이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낮은 음성이  
새어나오는 문을 두들겼다.  
“사랑합...” 엄마의 말이 끊겼다. 엄마는 차가  
운 표정으로 나를 힐끗 올려다봤다. 엄마의 손  
에는 딱딱한 말들이 적힌 종이가 들려있었다.  
“내일 아빠 만나도 돼?” 엄마는 그래 라고 말  
하고 다시 종이를 쳐다봤다.

엄마랑 아빠는 1년 전에 이혼했다.  
엄마가 텔레마케터 라는 직업을 가지고 난 후  
부터 한 달 뒤였다. 이 일을 하면서 엄마의 감정은  
크게 손상되었다. 날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와  
근심 가득한 표정이 엄마의 감정 상태를 잘  
말해주고있었다. 아빠는 갑자기 바뀐 엄마를 이  
해하지 못하고 더욱 언성을 높였다. 날카로운  
말들이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냈다. 결국 엄마  
와 아빠는 갈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간섭하지  
않기로.

오늘은 아빠를 만나는 날. 나는 한 달에 한 번  
은 아빠를 만난다. 아빠는 항상 나를 만나면 웃  
었다. 내 앞에서면 항상 우울한 감정대신 행복  
한 감정만 드러냈다. 길게 늘어진 입꼬리에는  
기쁨과 씩씩함이 동시에 묻어나왔다. 나는 아빠  
가 기다리고있을 고깃집으로 향했다.  
이를 드러내며 웃고있을 아빠를 생각하며 걸

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오늘 아빠의 표정은 고  
깃집에 불판만큼 어두웠다. 아빠는 나를 보고는  
활짝 웃어보였다.

“우리 딸 왔구나”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  
는 엄마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빠의 한 손에는 소주가 가득 담긴 술잔이 들  
려있었다. 꿀꺽꿀꺽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  
바닥에 깔려있는 아빠의 감정을 끌어올렸다. 니  
네 엄마는 감정노동자 라고 말을 시작한 아빠  
는 그 날 후회의 감정을 토해내며 밤을 보냈다.

요즘 나는 엄마가 싫었다. 예전과는 다른 차  
가운 모습에 나까지 엄마한테 차가워 졌었다.

오늘은 직업 체험의 날. 부모님의 일터를 방  
문해 직업을 체험하는 날이다. 엄마의 회사는  
문을 열기전에 시끄러운 전화벨이 귀를 아프  
게 했다. 유리문 너머에는 엄마의 웃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웃음이였다. 유리  
문을 열자 엄마의 기계적인 음성이 들렸다. “사  
랑합니다 고객님” 엄마가 집에서 연습하던 말이  
였다.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똑같은 말  
을 반복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철저히 자신  
의 감정을 숨긴 채로 로봇이 되었다. ‘피리리리  
리’ 많은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벨에 자신의 감  
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실제 감정을 잊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차가울 수 밖에 없  
던 딸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사랑합니다  
엄마”

시

저녁노을

조희란 <광주동성여중 1년>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길을 걷다 문득 하늘을 봅니다.  
저녁노을이 하늘에 예쁘게 피었습니다.

빨간 꽃밭, 노랑 꽃밭, 주황 꽃밭이  
한데 합쳐져 아름다운  
하늘마당을 이룹니다.

저녁노을은 벌써 지나가버린  
하루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해보게 하기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쉬는시간을 주는  
하늘의 종소리이기도 합니다.

미술시간에 보았던  
물감들이 물에 풀어져  
아름다운 색을 이뤘던 것처럼

저녁노을도 우리의  
예쁜 바람들과 소망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꽃밭입니다.

홀로 앉아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하는 사람,

마주보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사람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밤새 일하는 사람들도  
붉게 물든 저녁노을을  
보며 꿈을 꾀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릴까?’  
자기가 원하는 소망으로  
상상을 펼치고

‘저녁노을이 나의 바람을  
이뤄주길 바라며  
수고했어 오늘도’

시

모자

송민성 <광주송원초 3년>

연못위에 활짝 핀 연꽃모자  
개구리가 나와 함께 쓰자하네  
풀쭈 풀쭈... 어때?

하늘에 둥둥 구름모자  
파랑새가 나와 함께 쓰자하네  
 훨훨... 어때?

바다위에 세모난 파도모자  
고래가 나와 함께 쓰자하네  
썩아 썩아... 어때?

내가 접은 종이배 모자  
동생이 나와 함께 쓰자하네  
까르륵 까르륵... 어때?

동생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 23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순수한 시각, 뜨거운 열정. 광주일보가  
1956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전국예술종합  
대전 ‘호남예술제’는 전국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축제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  
도 전국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무용, 음악, 국악, 합주, 미술·작문, 만화·  
일러스트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오는 23일 최고의 기량과 재능을 보여

준 최고상 수상자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제6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가 오후 1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발레클래식 부문 박선주(수  
완중 2년) 학생과 한국무용창작 부문 조  
은빛(광주예고 2년) 학생 그리고 현대무  
용 부문 류인웅(송의고 3년) 학생이 무대  
에 오른다.

국악·음악 분야를 선보이는 2부에서는  
가야금병창 광주송원초(김도연 외 9명),  
성악 곽민경(살레시오초 5년), 피아노 이  
동화(광주예고 3년) 등 8팀의 연주를 감  
상할 수 있다. 2부가 끝난 후 3부에서는 각  
부문 최고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로비에서는 미술, 사·산문 최고상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062-220-05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63회 호남예술제 발레(클래식) 독무 경연에 참가한 김민교(일곡중3)양의 공연 모습을 다중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